

“아픈 상처 인정하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

일미 스님, 미타선원서 힐링 토크 콘서트 현장

성장을 위해 고통의 기억을 보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6월 13일 일미 스님(두크대 종교학과 부교수·아래사진)을 초청해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지 하림 스님, 불국정사 법천 스님 외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일미 스님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 콘서트는 마음나누기 힐링 레크리에이션, 일미 스님 소개 및 청법, 법문에 이어 참가자들과 질문 나누기 및 소감나누기 등이 이어졌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6월 13일 일미 스님을 초청해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상처 있는 자신 밀쳐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듬기 위해선 객관화 위한 용기가 필요...”

보듬어 안기 위해서는 직면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대중들의 질의 시간에는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고민, 자녀와의 의사소통, 청소년 불교 포교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질

문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김희승(19) 학생은 “꿈이 있는데 가끔 자신감이 없어지고 갈림길에서 방향을 하는 자신을 보며 슬럼프에 빠진다”고 고민을 털어냈다. 이에 대해 일미 스님은 “슬럼프가 없을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상상해 봤을 때 그것이 떳떳하다면 지금의 결정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중들은 미타선원 1층 차실 ‘좋은 인연’에서 소감나누기를 진행했다. 홍순하(49)씨는 “초여름 저녁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며 “일미 스님의 현재 모습은 도반 스님들이 준 용기와 칭찬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주변 도반들의 칭찬에 더 감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는 김희승(19) 학생은 “평소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껴서 경찰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 같고 마음의 고민을 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미타선원에서는 주최한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콘서트는 6월 13일을 첫 시작으로 6월 20일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그리고 행복할 가정을 위한 희망 만들기’로 진행했다. 마지막 일정은 6월 27일 오후 7시, 수미 런던 법사님과 함께하는 ‘사랑 만들기’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부처님 법 따라 사는 가족’으로 마무리된다.

일미 스님은 19세 출가, 2002년 미국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신학대학원)에서 ‘불교와 사회학’과 종교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 하버드대에서 한일 불교 관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두크대 종교학과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하성미 기자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등 민속문화재로

부산시는 지난 6월 11일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長安寺 冥府殿 三幡床)’을 부산광역시지정 민속문화재 제10호,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長安寺 應眞殿 法臺經床)’을 부산광역시지정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하고 6월 17일 부산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은 예불이나 불교 의식을 할 때 경전 또는 목탁과 요령 등을 놓아두는 것으로 천판 하부 바닥에 목서된 명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 및 1748년 제작연대 및 조선의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특히, 18세기에 제작된 경상의 조각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성미 기자

부산·경남, 행사 메르스 여파로 연기

대원사 사찰음식 축제 7월 초로

메르스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대거 연기됐다. 지리산 대원사(주지 묘명)는 6월 13일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내 조산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축제’를 다음 달인 7월 초로 잠정 연기했다.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국 음식과 사찰 음식이 함께 전시되어 소통을 꾀하며 건강한 음식 먹거리를 널리 알리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대원사 템플스테이 담당 혜성스님은 “이번 축제는 대중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먼저 다가가는 마음으로 준비해 더욱 뜻이 깊다”며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처음으로 사찰이 아닌 대중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장남보타월)이 개최하는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존

가족위안행사도 6월 12일에서 6월 29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 화명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개최되며 보존단체 및 유가족과 내·외빈을 초청 한 가운데 호국영령의 위령제를 시작으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또 행사를 준비한 유가족에 대한 표창과 보존유가족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등도 열린다. 이날의 행사는 부산북구청과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불교연합회와 53사단이 후원하며, 53사단의 군악대연주와 조총발사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하)은 매년마다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개최하는 ‘제 14회 혜원음악회’와 ‘제 18회 혜원 청소년 백일장’도 6월 13일에서 잠정 연기 됐다. 지역 사회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혜원 음악회는 인기 가수 출연과 격조 높은 문화 콘텐트가 마련되며 백일장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 및 장학금도 전달한다.

하성미 기자

“전통·현대 아우른 사찰 문화공간 만들겠다”

영배 스님, 통도사 제29대 주지 취임법회서 밝혀

“지역에 불교 특유의 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국지대찰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9대 주지 영배 스님의 취임 진산·고불식이 6월 1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신임 주지 취임 진산식에는 메르스 여파에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윤패 스님을 비롯해 울주 해남 스님, 유나 천진 스님 등 사부대중 150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영배 스님은 종단의 소임을 역임한 경륜을 바탕으로 불지종가의 가풍을 계승

하고 국지대찰의 면모를 일신 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자장율사의 계율과 정규를 본사 총림의 기본 이념으로 이행하며 금강계단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종단의 수계 산림을 항시 수용,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과 의논하며 소통하고 화합 승가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 치유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지대찰의 면모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통도사 신임 주지 영배 스님 취임사 장면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의원 윤패 스님은 축사를 통해 “방장 스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대중들을 대신해 축하

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자장율사가 개찰한 이후 덕망 있는 훌륭한 스님들께서 주석하며 통도사를 이끌어 온 그 정신을 이어 본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1965년 통도사로 출가, 1971년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1995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규정국장, 재무국장, 박물관장, 도서관장 및 11~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흥덕사를 창건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장, 미국 LA 동국 로얄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흥덕사 주지, 약사사 회주를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포교에 새바람 일으킬 터”

연제구불교연합회장 진효 스님 선출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 회장에 마하사 주지 진효 스님(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는 지난 6월 9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진효 스님(사진)을 선임했다.

이에 진효 스님은 앞으로 ‘지역적 성격 및 특징 파악’ 및 ‘연제구불교연합회의 소통과 화합’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진효 스님은 “부산에 온지 3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일 것”이라며 “지역 정서를 뿌리 깊게 아는 연합회 스님들과 화합해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와 발전을 위한 행사와 발전 그리고 포교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나누고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제구는 시청과 경찰청 등이 자리 잡은 행정중심지역으로 중요도가 남다르다”며 “이 지역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스님들과 의논하고 계획을 나눌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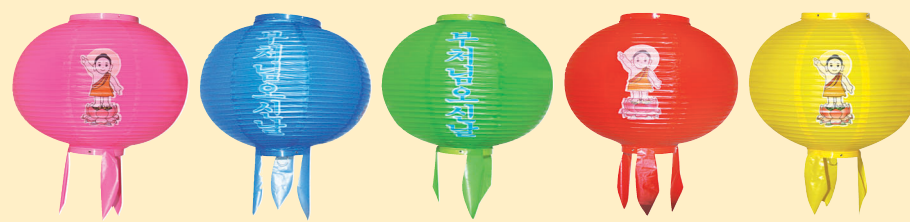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극락왕생등



영가등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69번길 27